

금남로에서

신향락



19대 국회의원 송선거가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의 시선은 굵지 않다. 사실 상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지역 정치권이 지역현안 해결에 무기력한데다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천의 민노당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민주당 의원 가운데 최고위원 1명, 최근까지 세(勢)를 과시했던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그리고 3선 이상 중진의원 6명에 상임위원장이 2명이나 되는데도 그들이 지역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뚜렷한 기억이 없다.

유치 실패 예견된 과학벨트

광주 유치가 무산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대응 과정을 보더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두말할 여지가 없는 상토의 대상이다. 광주시가 유치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총력전에 나섰던 과학벨트에 대해 대다수의 의원들이 남의 일처럼 여겼던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의원총회를 통해 과학벨트 입지를 충청권으로 정하기로 당론을 채택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은 아

예 그런 사실조차 몰랐고, 나머지 의원들은 당론인양 넘겼으니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지역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마지못해 내놓은 ‘뒷북’이 과학벨트 분산 배치를 요구하는 국회 개정안 제출이다.

호남권 과학벨트 유치위원장 김병식 초

무관심·무기력·무대응의 결과는

당대 총장이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 지역민 300만 명이 염원을 모아 서명운동에 참여할 때 호남이 뒷발이라는 민주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애써 무시했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지적에 의원들이 과연 무어라 강변할 지 궁금하다.

당론이라는 이유로 외면했다면 그들은 적어도 ‘주만 알’을 뒀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에 ‘미운 털’이 박힐 필요가 없다는 정치적 계산이란 얘기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인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 이르

면 분노마저 치민다. 정부가 최근 F1 대회를 국가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규정해 전남도가 요구한 추가 공사비나 대회 운영비 전액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데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대응은 찾지 어렵다.

오히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이 지난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F1 대회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 김형식 국무총리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아낸 게 아이러니하다.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도 지역 정치권이 나서 예산을 따내고 정부에 적극적인 지

원을 촉구했다는 어떠한 보도도 접한 바 없다. 여수는 인프라나 지명도 등 여러가지 면에서 조건이 여의치 않다. 여수공항 활주로 400m 연장, 크루즈항 부잔교 설치, 신·구항 연결도로 신설 미비 등에 따른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돼 성공 개회 여부가 불확실하다.

정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이나 재외공관을 동원한 대대적 홍보가 필수요건임에도 지역 정치권이 방관자적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다.

물론 야당으로서 지역 정치인들이 느끼는 한계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현

안사업에 소신과 의지를 표출하지 못하는데서야 지역을 대변한 국회의원이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야당의원으로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단식농성을 하든, 싸움을 하든, 그게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물갈이’는 변화 바라는 민심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저축은행 예금 전액 보상”이라는 “배법”을 들고 나와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부산사람들에게 결코 억지로 비추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산적한 지역현안에 위기의식과 진정성을 갖지 못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내년 총선에 혈안이 돼 당 지도부에 대한 ‘눈 도장 찍기’에 열을 올리고, 계파 정치에 함몰된다면 지역민심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보가 금년 초 광주·전남 시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역시 민심의 변화다. 광주시민의 57.1%, 전남도민의 64.1%가 차기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이대론 안 된다’는 얘기다.

공천 과정에서 걸러지더라도 설사 그게 아니라면 지역민의 손으로 갈아 엮는 길 외에 달리 도리가 없다. 내년 4월 그들이 어떠한 역할을 들고 떠날 지 분명 지켜볼 것이다.

〈논설주간〉 hlshin@kwangju.co.kr



류동훈

영광 백수 해안도로는 아름다운 해안선과 수평선의 황홀한 해넘이와 저녁노을이 장관인 관광 명소이다. 지난 일요일 영광 꽃누리 축제도 보면서 가까운 백수 해안도로를 다녔 살, 세 살 된 딸,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갔다.

노을 전시장 앞 난간에 일몰 시각에 맞춰 도착해 다채로 바다에 해가 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어린 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평선에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었기에 나

햇님, 상어에게서 지키기

럼.” 그러자 딸이 “뽀로로가 막대기로 상어를 지켜주는 거야?” “그래, 내일 아침이면 저 산에서 햇님이 다시 나올 거야.” 순간 딸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면서 좋아했다.

둘째 딸은 계속해서 “뽀로로, 뽀로로”하면서 햇님을 지켜주는 뽀로로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에게 햇님이 나왔는지 보러 가자고 하니, 바로 일어나 밖에 나가서 해가 무사한 것을 보고 좋아하면서 다시 침대로 들어갔다.

바다로 빠지는 햇님이 상어에게 공격당할까봐 걱정을 해주는 아름다운 어린아이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윤석군

유홍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나온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글귀가 아른거린다. 남도가 여행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지만 과연 여행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 본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다.

새천년 이후 농정의 패러다임이 농어업인 중심인 단순 농어업 생산기지에서 국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80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세대의 본격적 은퇴 시기와 맞물린 결과라는 의견과 민주화를 태동시킨 386 세대들의 본격적 사회진입에 기인한 결과라는 의견

등 다양한 시각차가 있다. 이유야 어찌 됐던간에 앞으로 농어촌은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문화강좌·공연 상황, 문화·생태체험 각광, DIY 활동증가 등 활동적 여가활동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 있다.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고, 보고 듣는 간접경험보다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여가활동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 체험에서 감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활동 중심 여가활동이 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어촌은 이미 블루오션이 아닐까 한다.

등산, 트레킹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아토피도 시장의 성장세가 무섭다. 자전거 역시 단순 운반용에서 건강이 가미된 레저용으로써 그리 어색하지 않은 풍경이다. 20년 전에 중심사 계곡에 아토피도 전문 매장이 이렇게나 들어설 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 싶다.

농어촌’ 이제 여가로 말한다

여러 전문가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산업화를 이끌었던 베이비세대가 은퇴와 함께 시간 소비형 여가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정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등산 옛길(무등길)’을 걷다 보면 저 멀리 회색빛 광주시내가 확 펼쳐져 보인다. 옛 너릿재길을 걷다 보면 벚꽃, 야생화, 소나무 그리고 논밭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눈에는 전자가 익숙해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면 후자가 더 익숙하다는 것은 어찌 된 것일까?

어느덧 초여름의 언저리에 들어서고 있다. 외부 활동이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도시민들은 자연을 찾아 이곳저곳을 배회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빌딩 숲은 아니라 본다. 드넓은 평야와 새들이 지저귀는 시원한 숲과 그리고 졸졸 소리 나는 시냇가가 있는 곳을 찾을 것이라 감히 자신한다. 그곳이 어디 인가? 너무도

익숙한 ‘농어촌’이다.

이제 농어촌은 농어업인만이 아닌 모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삶과 휴식의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식량기지로만 보지 않는다. 삶의 가치관 변화로 관광 및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농어촌에서 여가수요를 어떻게 지역활성화로 연계시킬 것인가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특화 과제가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장흥 편백숲 우드랜드, 화순 테라리, 그리고 자전거 트레킹, 재활함바, 지리산 둘레길, 광주 무등길 등 각종 체험활동을 수용할 활동형 기반장비,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숲터갤러리, 도시와 농어촌이 교류할 수 있는 도농교류센터 등 소통형 인프라인 기반정비사업의 중심에 한 농어촌공사의 역할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지금까지의 농어촌은 인구감소, 고령화문제, 취약한 산업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 부정적 이미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어촌은 친환경, 감성, 건강한 삶이 있어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팀장〉

타인에 피해 없도록 학교급식 식사예절 교육 필요

점심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중에 하나일 것이다. 수업시간에 서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주고받으며 웃음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런데 요즘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도와주면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에 대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

맛있는 반찬이 나오는 날, 일부 학생들은 질서를 무시한 채 길게 늘어선 줄 맨 앞으로 새치기를 한다. 물론 급식 담당 선생님이 질서지도를 하기는 하지만 모든 학생을 일일

이다 통제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또 점심식사를 마친 뒤 식판을 그대로 탁자에 놔두고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 귀찮다는 이유로 식판을 놓고 가면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이 떠맡아야 한다. 배우는 학생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영양을 고려해 식단을 조절하다 보니 반찬이 매일 본인의 입맛에 맞는 것만 나올 수는 없다. 그런데 반찬이 맛없다는 이유로 바닥에 반찬을 버리거나 자기가 사용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 철회해야 하는 이유

광주호 독 높이기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가 저수용량·수몰면적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작성돼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초안보고서는 광주호의 총 저수용량이 2175만㎡인데 반해 5790만㎡로 잘못 표기돼 있으며 기존 수몰면적 역시 11만3618㎡와 13만4348㎡로 상이하게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업으로 인해 독 높이가 기존 25.5m에서 27.6m로 2.1m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호수생태공원의 홍수 수위가 기존 높이보다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수위 상승에 따른 가사문화권의 침수 여부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초안보고서에 표기가 잘못된 것을 시인했지만 백년대계를 위한 사업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오류와 불신을 낳은 저의가 의심스럽다. 또한 초안보고서만 놓고 보면 독 높이기 사업이 득보다 실이 큰데다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등에 설득력이 없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독을 높일 경우 가사문화권 일대와 호수생태공원의 침수피해가 우려되고, 투입 예산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 광주시와 환경단체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농어촌공사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사문화권은 침수영향이 없고, 호수생태공원 일부만 잠길 것”이란 주장은 억지나 다름 바 없다.

영산강환경정비 가사문화권 침수와 녹조발생 저감대책 등의 보원을 지시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광주호는 51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만큼 물 부족을 겪는 곳은 아니다. 오히려 바닥 준설을 통해 저수용량을 높이는 것이 실익이 크다.

135억 원을 들여 조성한 호수생태공원이 물에 잠긴다면 이 또한 예산 낭비다. 현 상황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이 사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공공기관 지방대생 우선 채용 바람직하다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47개 비(非)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을 하반기부터 지방대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기준에 지방대생 채용비율을 새로 포함 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방 이전 공공기관으로부터 과거 지방대 출신 채용비율과 향후 확대 방안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대생 우선 채용은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그동안 지방대는 수도권 대학에 밀리면서 낮은 취업률→인력유출→지방대 위기→지방 낙후라는 악순환의 사발점이 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대생의 심각한 취업난은 학생과 대학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지방의 현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대생 우선 채용을 단순한 취업난 해소나 아닌 국가균형발

전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 무엇보다 이 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서둘러야 한다. 이를 미루다가는 공공기관과 수도권 대학의 반발과 저항으로 자칫 흐지부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으로 끝나선 더더욱 안 된다.

지방대 역시 공기업이 요구하는 우수 인재들을 기르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파악, 대학 차원에서 기업들에 알리고 취업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수도권이나 타 지방대와의 경쟁력에서 뒤처지 않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의 광주·전남대학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지자체도 지방대 출신자를 일정한 비율 이상 고용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역과 지방대가 활성화되고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無 等 鼓

‘신화(神話)’는 은유(隱喩-metaphor)다’

비교신화학의 대가인 조셉 캠벨(Joseph Campbell·1904~1987)은 신화를 은유로 정의하고 있다. 100m를 9초대에 질주하는 육상선수 ‘우사인 볼트’를 예로 들자면 ‘볼트는 바람처럼 빠르다’는 직유, 그리고 ‘볼트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다.

신화를 바라보는 캠벨의 시각에 따르면, 단군신화에서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사실은 아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던 영역인 상징과 종교적 계서를 담은 이야기다.

캠벨은 “전체적으로 신화란 상징적인 이미지들과 이야기들을 조합해놓은 것”이라며 인간 경험의 가능성에 대한 은유이고, 특정한 시대에 이뤄진 특정한 문화적 성취”라고 설교하고 있다. 그는 또 “인류의 절반쯤은 종교 전통의 은유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

며, 나머지 반은 은유가 결코 사실일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은유를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자신들이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 은유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게끔 자신들을 무신론자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신흥종교단체가 ‘지구가 멸망하는 심판의 날’이 왔다고 예언했다가 빚나가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지난 달 21일 전세계에서 선택받은 2억 명이 신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이 예언의 골자였는데, 실제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다고 한다.

신화의 진실



캠벨이 봤다면 ‘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했을 성싶다.

하지만, 인간의 지적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종말론들을 마냥 무시해버리기엔 어딘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도 우리 인간의 속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結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경영지원국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광교마케팅국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경 부		2200-612		<F A X 227-96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팀		2200-697		디 자 인		2200-536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서 울 지 사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 획 사 업 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